

10.03

미향에게

안녕 엄마

그간 보내주었던 편지는 사실 여행 중이라 형식 변환을 할 수 없어서 오늘 읽었어. 그간 영진이가 많이 피곤 했나 보네. 이모할아버지는 건강하시기를 나도 멀리에서지만 응원할게.

그래서 줌바는 재등록을 했어? 나도 러닝을 하고 싶은데 여기는 너무 춥고 밤에는 조금 무서워서 약간 꺼려져. 아침 러닝을 시작하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날씨가 조금만 따뜻했으면 좋겠다. 다행히도 여기 학생들에게 스포츠는 무료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해.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기회가 된다면 한 번 신청해보려고. 여기와서 계속 단것과 빵만 먹으니까 몸이 무거워지는 느낌이야.

나는 스페인 여행을 하면서 음 즐겁기도 했지만 나에게 맞는 게 무엇인지 느꼈던 것 같아. 마요르카 섬은 너무 좋았어 - 수영을 좋아하는 나이기 때문일까,, 그리고 한국인이 정말 없어서 좋았어. 가끔 온전한 이방인이 되고 싶을 때가 있거든.

바르셀로나는 이제는 다시 갈 일은 없을 것 같아. 가우디 건축물도 다 봤고,, 솔직히 이제는 관광도시? 관광만을 위한 여행은 나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 그리고 너무 활기차고,, 그 와중에 사람도 많고 소매치기도 많으니까 정신이 없어서 조금 피곤하더라고. 하지만 다시 간다면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사그리다 파밀리아는 정말 좋았거든.

이런저런 기다리는 시간에 전자책으로 책을 좀 읽었는데 두 권이나 읽었어. 하나는 김영하 작가의 여행의 이유, 하나는 최진영 작가의 단 한사람이라는 책이야.

여행의 이유는 이전에도 읽었는데 여행을 할 때마다 읽게 되는 책인 것 같아. 내가 좋아하는 구절을 들려줄게.

*"모국어가 들리지 않는 땅에서 때로 평화를 느낀다. 모국어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지만, 이제 그 언어의 사소한 뉘앙스와 기색, 기미와 정취, 발화자의 숨은 의도를 너무 잘 감지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진정한 고요와 안식을 누리기 어려워졌다."*

*"후회할 일은 만들지를 말아야 하고, 불안한 미래는 피하는게 상책이니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미적거리게 된다. 여행은 그런 우리를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로부터 끌어내 현재로 데려다 놓는다. 여행이 끝나면, 우리는 그 경험들 중에서 의미 있는 것들을 생각으로 바꿔 저장한다. 영감을 좇아 여행을 떠난 적은 없지만, 길 위에 날들이 쌓여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최진영의 단 한사람이라는 소설은 너무 좋아서 두 번이나 읽었어. 엄마도 읽어봤

으면 좋겠어.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야. 내가 좋아하는 구절 또 적어줄게.

*"어떤 사랑은 끝난 뒤에야 사랑이 아니었음을 안다.*

*어떤 사랑은 끝이 없어서 사랑이란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어떤 사랑은 너무 멀리 있어 끝이 없다.*

*어떤 사랑은 너무 가까이 있어 시작이 없다."*

*"그러나 묵화는 더 이상 이분법의 굴레에 갇혀 있지 않았으므로, 자신의 악한 마음을 위해 기도하는 선한 사람을 생각했다."*

*"생명은 은총이 아닐 수도 있다. 삶이라는 고통을 주려는 것인지도. 그러나 삶은 고통 이자 환희. 인류가 폭우라면 한 사람은 빗방울, 폭설의 눈송이, 해변의 모래알. 아무도 눈이나 비라고 부르지 않는 단 하나의 그것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 존재하는 그것은 금세 마르거나 녹아버린다. 순식간에 사라져버린다. 어쩌면 그저 알려주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고. 생명체라는 전체가 아니라, 인류라는 종이 아니라 오직 너라는 한 존재를 바라보고 있다고."*

어쨌든 나는 가끔 책도 읽고 잘 챙겨먹어. 오늘은 전시회도 갔다 왔어. 혼자서 프랑크푸르트로 가서 사진 전시를 봤어. 음 나는 아름다운 것을 보는게 좋은 것 같아.

내일은 캠퍼스 투어가 있는 날이야. 아 얼마전에는 welcome어쩌구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한국인이 진짜 많더라고, 거기서 이대학생들이랑 친해져서 밥을 같이 먹었는데 이대에서는 27명이나 왔대. 아 그리고 그 웰컴키트에 뭐가 들어있었는지 알아? 술이랑 병따개랑 콘돔이 들어있었어. 아무리 성인이라지만 학교에서 이런 것을 나눠주는게 꽤나 신선하고 충격적이었달까.. 어쨌든 나도 내일을 위해 오늘을 마무리하고 잠에 들어볼게.

엄마도 아빠도 편안한 잠을 잤으면 좋겠다.

사랑해.



<- 오늘 전시회에서 봤던 가장 맘에 드는 사진